민선 6기 마무리 윤장현 광주시장 인터뷰

“시민 속에서 나온 시장 가장 자랑스러워”

광주형일자리 고안·공원 일몰제 성과

행정 초보로 인사 매끄럽지 못해 죄송

2015 U대회 성공 개최 가장 기억 남아

아내에게 미안…여행 같이 가고 싶어

청년들 미래 지역이 앞장서 챙겨야

에너지·차·문화콘텐츠 민선7기 유지를

민선 6기 윤장현호가 그 소임을 다하고 종착지에 다다랐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시장에 오른 그는 ‘시민시장’임을 강조하며 권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실천했다. 기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광주의 아픔을 가슴 속 깊이 이해하고 어루만졌으며,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을 챙겨 시정의 중심에 자리하게 했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고민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고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그 성공 여부에 대기업 노사·광주시민은 물론 나라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인 ‘청년 Job 희망 팩토리’, 전통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상인 활력지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비롯한 모든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성과를 일궜다. 덕분에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1위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일몰제 실시로,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가동해 괄목할 만한 성과도 냈다. 윤시장과 인터뷰는 최근 그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시장으로 불렸다. 스스로 평가해본다면.

▲기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라 시민 속에서 나온 시장이라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광주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광주를, 그리고 시정을 바라볼 수 있었다. ‘광주’하면 자랑스러움과 아픔이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만큼 후손들이 잘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광주의 문제였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시정을 위해 광주의 약자, 즉 비정규직·장애인·청년을 비롯해 자칫 행정에서 비켜갈 수 있는 계층을 챙겼다. 다만 행정 초보였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 인사를 잘 챙기지 못한 부분 등은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과 실천적·전략적 대안 제시는 제대로 했다고 자평한다.

-현대자동차와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일 현대차에서 ‘완성차 위탁생산’을 위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여부 검토를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사업참여의향서를 광주시에 보내왔다.

주요내용은 광주시와 다수기업이 참여하는 합작방식 독립법인에 여러 투자자 중 일원으로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3000여억원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책화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 제조업 공동화 방지 및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실무진 협상과 투자 규모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보여줬던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는데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4년 임기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은.

▲광주에서 호남 최초의 국제행사인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예산도 크게 절감했다. 첫 1년을 준비에 매진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위기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급성장출혈이 올 정도로 고민했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발달장애가 있는 기림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다.(그는 그 편지를 족자로 만들어 집무실에 걸어두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발달장애아와 함께 보내보면 가족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 지에 따라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다. 아쉬웠던 순간은 역시 초기 친인척의 부정부패 연루로 인한 타격이었다. 권위를 내려놓고 청렴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흠결이 생겼다. 사실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기 위해 공관도 안 들어갔고, 이코노미석을 탔으며, 전기차를 관용차로 썼다.

-갑자기 재선 도전을 멈췄다. 서운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원래 당 출신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당내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했다.(그는 4년 전 선거를 치르면서 병원 건물을 팔았고,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사람은.

▲중증근육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이 중앙부처 직원들이다. 사실 초기 정부 예산을 따러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획재정부 전 실과를 다 돌며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중에 좀 기분 상하게 하는 간부가 있었는데, “당신들 고시 합격해 입신양명할 때 광주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좀 도와 달라”고 솔직히 말했다. 지금 그 간부에게 김치를 보내주고, 세종시에 가면 점심도 먹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됐다.

묵묵히 저를 도와준 공직자들도 생각난다. 공직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의전, 내용적으로는 상명하복인데 여기서 벗어나 협업과 토론, 거버넌스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 공직자들이 모두 현장 중심으로 사고하고 협업하는 행정을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청년 드림, 비정규직 정책 등이 모범 정책이 된 것이다.

-민선 7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추진했던 에너지·자동차·문화콘텐츠 등 3개 밸리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선도적인 정책들은 유지했으면 한다. 노동계와의 협치, 노사민정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이는 민선 6기가 아니라 광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계획은.

▲처에게 항상 미안하다.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개업의를 남편으로 뒀는데, 4년 동안 공인으로서 조심하고 살았을 것이다. 두 어르신 모시면서 남편을 위해 헌신해줬다. 여행을 같이 다니고 싶다. 또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 광주 정신을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제3세계 보건 의료 지원도 광주 정신의 발현이라는 의미에서 이어가겠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가정의 기둥이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에 주목하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이 챙겨야 한다.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면 한다. 시민 여러분이 광주에서 계속 살아갈 저를 시장이든 목욕탕이든 어디서 만나든 우리 시장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쉼없이 달려왔기에 후회는 없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이라는 광주의 가치가 국가의 어젠다(의제)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혁신위, 경제자유구역 1·2단계 나눠 추진

빛그린·도시첨단산단 1단계

광주역·군공항 2단계 개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윤수)가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혁신위원회 김일태 일자리경제분과 위원장은 24일 서구 혁신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 중에 있는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지역을 1단계로 추진해 조기에 개발을 완료하고,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역과 군공항 지역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섭 당선인은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 당선인이 시장에 취임하면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광주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상지역 및 규모의 적정성, 단지별 특화산업 유치전략 등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관련 현안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광주시의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 정책결정·집행·평가를 체계화 한다는 계획이다”면서 “광주시의 자원과 역량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일자리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 중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에 대한 4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는 혁신과제로 ▲청년일자리 해결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광주형일자리 발전 ▲에너지신산업 선도도시 구축 ▲광산업 재도약 ▲4차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또 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 혁신방안,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전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도의원 58명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전남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제11대 전남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 운영과 원구성, 의장단 선거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11대 첫 임시회는 다음달 10~11일 이틀간 열리며,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